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안희관 요셉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이민찬 비오

2구역장: 김산영 율리아 3구역장: 권혜림 세레나 청년구역장: 이동애 디오니시아 전례위원장: 엄기용 안토니오

여성위원장: 구희선 스텔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변의용 베네딕토 외교위원장: 곽형선 안셀모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안전 거리 유지(방역에 신경쓰기)**
- **10월 목주 기도 성월을 맞아 목주 기도 자주 바치기**

(녹) **연중 제30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 전교주일)

(2022. 10. 23.)

* 오늘 전례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 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 제2독서(로마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 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이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 복음(마태오):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 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깊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깊이 깨닫고,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모든 일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함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말은 삼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3. 감옥에 갇힌 이들과 교정 사목에 봉사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감옥에 갇힌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지난 생활을 돌아보고 새 삶을 준비하게 하시며, 교정 사목 봉사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 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믿고 온전히 의탁하며,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 당: 17 정의의 하느님

봉 헌: 342 제물 드리니 / 221 받아들소서

영성체: 153 오소서 주 예수여 / 498 예수여 기리리다

파 견: 63 온 세상에 전파하리

공지 사항

♣ 다음 주일(10/30), 새 사목위원회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현 사목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롭게 봉사직을 맡아주실 차기 임원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본당 25년사 자료 수집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고자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본당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올리실 수 있습니다.

♣ 성가대 음악회

- 일시 : 11월 20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Oratorio del Gentilino

♣ 모임/회의

- 금일(23일) 미사 후 여성위원회 모임.

♣ 봉사자

	오늘(23일)	다음 주일(30일)
제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박세아 루시아
제2독서	우윤정 마리아	박동현 요한보스코
복사	엄채운 엘리사벳	강윤이 스텔라
복사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안서현 안젤라
계단·화장실	정상현 안토니오	박세아 루시아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55.8

• 교무금 € -